



특집 _ 한상(韓商) 비즈니스 교류의 장, '세계한상대회' 10월 대전서 개최
 기획 _ 경제지표 확실한 회복의 길로... 국민·기업 합심한 결과
 화제 1 _ 정부 9천900만 명분 백신확보... "하루라도 집단면역 앞당길 것"
 화제 2 _ 문재인 대통령 "개정된 4·3특별법, '역사의 집' 설계도 성실 이행"



‘재외동포교육 2.0’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업그레이드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재외동포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탄탄하다. 그러나 ‘어떻게’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한 것 같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민족적 정체성과 유대감 고취와 함께 현지생활 능력 배양과 적응력 신장을 그 목적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재외동포교육은 언어, 역사, 문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현지생활이나 적응력 관련 진지한 노력은 무엇이 있나?

‘우리’를 알고 ‘우리끼리’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재외한인들은 ‘그들’ 속에 살고 있으니, ‘그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어쩌면 더 중요하다. 조국의 독립에 대한 염원, 전쟁과 분단이라는 참혹한 현실,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갈망 등을 생각한다면 재외동포교육이 언어, 역사, 문화에 집중되었던 이유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재외동포교육은 너무 아쉬운 점이 많다.

‘한인으로’ 못지않게 ‘훌륭히 잘 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면, 재외동포교육의 현실은 심각한 문제이다. 재외한인들 가운데는 다른 민족 집단들에 대한 편견으로 이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면서 거주국에서 당하는 일상적 차별 등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시기와 미움, 경멸과 오해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재미한인을 보더라도 거의 30년 전에 일어났던 LA폭동의 기억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한데 최근 또다시 아시아인에 대한 중요범죄에 가슴을 졸이고 있다.

물론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폭력, 또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인들의 태도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 희생자 탓(blaming the victim)은 극도로 경계해야 하지만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재외동포교육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현지에 적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재외동포교육의 본래 목적이라면 미래의 재외동포교육은 혁신이 필요하다. 문화인류학자로서 또한 재외한인과 이민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유네스코가 강조해온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의 시각을 도입한 ‘재외동포교육 2.0’을 제안하고 싶다.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유대감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거주국에서 일상 겪는 차별에 대해 슬기롭고 용기 있게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야말로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서로 존중하고, 단지 싸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착취와 억압이 없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이루어나가는 능력도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보다 넓은 세계에서 진행되는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깨닫는 것은 어떠한가? 재외한인들도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를 생각하며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해야 하지 않을까? **창**





04



06



22



- 02 권두언 '재외동포교육 2.0'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업그레이드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04 특집 한상(韓商) 비즈니스 교류의 장, '세계한상대회' 10월 대전서 개최
- 06 기획 경제지표 확실한 회복의 길로... 국민·기업 합심한 결과
- 08 화제 1 정부 9천900만 명분 백신확보... "하루라도 집단면역 앞당길 것"
- 09 화제 2 문재인 대통령 "개정된 4·3특별법, '역사의 집' 설계도 성실 이행"
- 10 글로벌 코리안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聯 회장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촉구
이강영 멕시코 태권도 대표팀 감독과 청소년 대표 딸 서현
'美 정부 최고 엔지니어'에 주한미군 한인 우연회 소령
- 12 한민족 공감 메리다에 사는 김씨·이씨·박씨... 뿌리 기억하는 후손들
- 14 유공 동포 '美 입양한인 대부' 신호범 전 위싱턴주 상원의원
- 15 주목! 차세대 호주동포 강다에 변호사 "北 인권 향상 기여하겠다"
- 16 동포소식 캐나다 애국지사기념사업회, 독립운동가 조영 책 발간 외
- 19 동포 캘린더 세계한인무역협회, 5월 24~27일 대전서 수출상담회 외
- 20 지구촌 통신원 1 인도네시아 짜아짜아족, 한글에 태권도 교육까지... "차렷, 경례"
- 21 지구촌 통신원 2 중역지에 분노한 한인 학생들... 美도시 설득 '한복의 날' 제정
- 22 OKF 뉴스 재외동포재단 임직원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외
- 24 유관단체 소식 외교부, 혐오범죄 대응 위해 재외동포단체에 1억7천만원 지원 외
- 25 기고문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행학교, 대한민국 항공의 역사를 찾자.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 26 재단공지 세계한상대회 영비즈니스 리더 참가자 모집 외

발행인: 김성곤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05호, 406호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상(韓商) 비즈니스 교류의 장, '세계한상대회' 10월 대전서 개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과 그린 뉴딜’ 주제로 네크워킹

10월 대전서 “모국과 한상 동반 성장 모색”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제19차 세계한상대회는 대전광역시에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세계한상대회는 재단이 2002년부터 매년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한민족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4천여 명이 참석해 모국과 동포기업 간의 동반 성장을 모색해 왔다.

재외동포재단은 4월 12일~13일 이틀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5개국에서 약 50여명의 동포 경제단체장 및 기업인·경제인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12일에 열린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작년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와 함께, 오는 10월에 열리는 제19차 세계한상대회 운영 계획, 한상대회 해외 개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그리고 13일 리딩CEO 포럼에서는 신규 리딩CEO를 위촉하고 포럼 개최지를 선정했다.

운영위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아중동한상연합회,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를 비롯해 미국·유럽·대양주 등 대륙별, 업종별, 세대별 경제단체장과 주요 한상이 참여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모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한상의 역할을 확대하고 청년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국내 중소기업은 품질이 우수함에도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준비 부족으로 글로벌 사업을 확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지화 한 한상의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더해지면 수출의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인들의 대회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해외에서 성공한 한 명의 거상(巨商)으로 인해 수많은 고용 창출을 하고, 나아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징검다리 역할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해외 인턴 채용이나 취업이 궁극에는 창업으로 이어져 차세대 거상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성룡 대회장 “모국기업 수출 확대에 앞장 설 것”

올해 대회장에는 지난해 대회장에 선발되었던 재중동포 기업이 표성룡(67) 회장을 재선임했다. 대회장은 전 세계 한상을 대표하며, 대회 홍보는 물론 프로그램 구성과 행사 주관 기관과의 유대 강화 등 대회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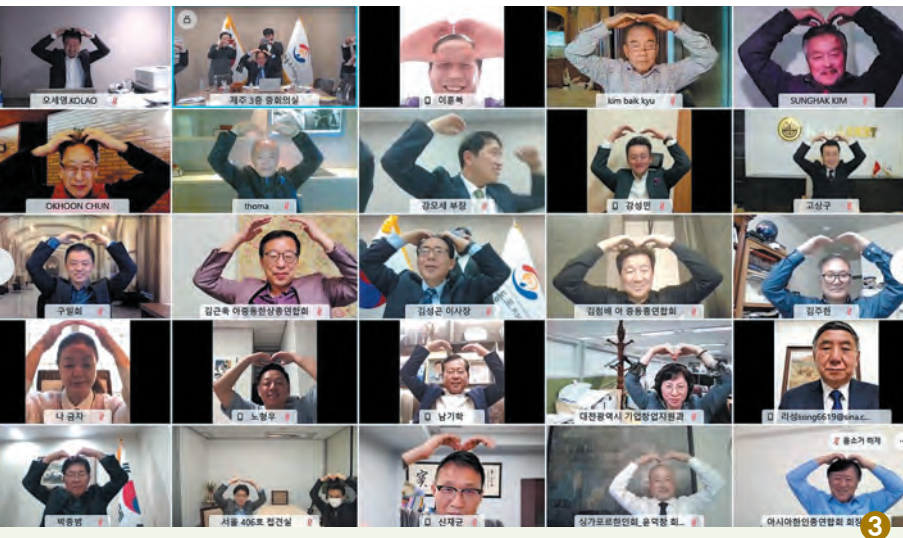


표 회장은 “한상대회에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상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동대회장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모국 기업의 수출 증진 등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한상과의 협력의 장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며 “국내 청년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한상 청년 채용 확대 등도 모색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표 회장은 심양심도강철시장관리유한공사, 심양계명경영관리유한공사, 캄보디아 과학발전유한공사 등 12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재중동포 기업인이다. 작은 간장 공장에서 시작해 압연, 레미콘, 강재 등 건축재 판매로 사업을 확장했던 그는 1995년 심양에서 한국기업과 레미콘 사업 합작을 계기로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강철 시장에 뛰어들었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강철판매시장을 소유하고 있다.

표 회장은 2007년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를 창설하는 등 재중동포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는 현재 북경을 비롯해 중국 내 32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3천여명의 기업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한상대회 최초의 조선족 기업인이 한상대회장으로 선임된 것은 한상의 단합이라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보고있다. 재단 관계자는 “조선족동포 기업인들이 오랫동안 북한에 투자해오고 있어, 남북경협이라는 구도에서는 인프라가 강화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개최지로 울산 확정

재외동포재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를 울산광역시로 확정했다.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들은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군산시)의 유치계획발표를 청취한 뒤, 질의응답을 통한 제반 사항 점검 및 사전 안전자료로 배포된 현장실사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내년도 개최지를 결정했다. 그리고, 다수 운영위원의 참가가 용이하고 현지 단체와 협력 가능한 중국 북경에서 제40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운영위원들은 “행사를 유치하려는 울산광역시의 열정, 풍부한 국제대회 개최 경험, 훌륭한 인프라 여건으로 운영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세계한상대회가 국가급 비즈니스 컨벤션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많은 한상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향후에는 해외에서도 대회가 개최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대회 주요 프로그램으로 ▲리딩CEO포럼, ▲영비즈니스 리더&한상포럼, ▲한상CEO 네트워킹, ▲기업IR, 1대1 비즈니스미팅, 세미나, 투자유치설명회 등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한상넷(www.hansang.net)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장]

1. 2021년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을 맡은 표성룡 회장
2. 2002년부터 매년 열리는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4천여 명이 참석해 모국과 동포기업 간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자리다. (사진은 2018년 제16차 세계한상대회)
3. 재외동포재단은 4월 12일~13일 15개국에서 약 50여명의 동포 경제단체장 및 기업인·경제인 등이 참여한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 및 리딩CEO포럼을 개최했다.
4. 세계한상대회 기간에는 국내 중소기업의 업종별·지역별 상품 전시회와 1대1 비즈니스 미팅이 열린다.
5. 4월 12일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2022년 세계한상대회 울산 유치를 제안하는 송철호 울산시장(가운데).

경제지표 확실한 회복의 길로... 국민·기업 합심한 결과

정부, “일자리 회복 최우선·서민경제 살리기 집중”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4월 5일 “각종 경제지표들이 확실한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2월 산업생산은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이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물론 어려웠던 서비스업 생산도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올러 “수출 역시 3월 수출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증가했고, 품목별로도 15대 주력 품목 중 14개 품목이 증가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떨쳐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경제의 빠른 회복은 정부의 비상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해 낸 결과”라고 언급하며 국민과 기업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1인당 GDP 이탈리아 첫 추월... 경제규모 '톱10'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지표로 나타나는 경제회복의 흐름을 국민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을 두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계층에 힘이 되는 포용적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산업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과 함께 기업활동 지원과 규제혁신에 더 속도를 내 경기 회복을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3월 31일 문 대통령은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기업인, 상공인들의 노력이 우



1

리 산업과 무역을 지켜냈다”며 “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이 다가왔다. 경제회복이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집단면역을 조속히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맞춤형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와 고용 회복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2020년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 또한 전년보다 두 계단 상승해 세계 10위에 진입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7일 “우리나라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에 효과적이고 신속히 대응하면서 경제 충격을 최소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2



3

경제순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1위를 유지하다가 2018년 10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그러다가 2019년 12위로 내려갔지만 1년 만에 10위권을 회복했다. 2019년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던 브라질과 러시아를 2020년에는 추월했다.

이올러 우리나라 1인당 GDP도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앞섰다. 2020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 1497달러로 이탈리아(3만 1288 달러)를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다.

정부, “일자리 더 많이 부지런히 만들 것”

정부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위기 전개로 일자리·분배 지표의 개선 흐름이 주춤해진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내수·고용 측면에서 자영업자·취약계층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여전하고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한 부문별 격차 확대,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가속화, 인구충격 확대 등 경제 도전요인도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대 중후반 이상의 성장을 위해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63% 목표 달성에 주력하면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추경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민자·공공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3대 소비촉진 패키지 시행,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한 소비회복 여건 조성한다. 이와 병행하여 민간채용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도 진행한다.

이올러 부동산, 물가, 가계부채,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 점검, 반도체·친환경차 등 전략산업에 대한 다각적 지원방안 강구한다. 또 한편으로는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및 인구감소 등 경제구조변화 대응, 취약계층 대상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일 노동절에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절인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 위기가 노동 개혁을 미룰 이유가 될 수 없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나누며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마음으로 정부

는 고용 회복과 고용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일자리를 더 많이, 더 부지런히 만들고, 임금체불과 직장 내 갑질이 없어도 계속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도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 규범 속에서 상생하자는 약속이며,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 위한 일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들이 “잘 안착할수록 노동의 만족도와 생산성이 높아져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함께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세계 노동절이다. 집의 기초가 주춧돌이듯, 우리 삶의 기초는 노동이다”라며 “필수노동자의 헌신적인 손길이 코로나의 위기에서 우리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보건·의료, 돌봄과 사회서비스, 배달·운송, 환경미화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노동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창**

1. 문재인 대통령이 4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올해 1분기 항공화물 물동량이 역대 최대라며 코로나19 이후 신성장 화물 증가와 경기 회복세가 더해져 운송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3. 3월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내내 이어지던 마이너스(-) 행진을 끊고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의 구인 게시판

정부 9천900만 명분 백신확보... “하루라도 집단면역 앞당길 것”

“접종완료 시 자가격리 면제 등 자유로운 일상 누리도록 준비”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4월 26일 “우리는 총 1억9천200만 회분, 즉 9천 9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집단면역 달성 시기를 앞당길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화이자와 2천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추가공급 계약을 맺은 사실을 소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추가공급 계약의 의미에 대해 “18세 미만 접종 확대,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3차 접종(부스터샷) 등 추가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확보한 9천9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목표 3천600만 명의 2.75배에 해당한다. 이어 홍 총리대행은 4월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 1천200만 명 이상에게 접종을 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설명했다.

홍 총리대행은 “9월 말까지는 전 국민의 70%인 3천600만 명의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면서 이들이 2차 접종까지 마치는 11월에 집단면역을 차질 없이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집단면역 시기를 11월 이전으로 단 하루라도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백신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방접종 역량이다. 예방접종센터는 5월 초까지 204곳에서 267곳으로, 민간위탁 접종요기관은 5월 말까지 2000여 곳에서 1만 4000여 곳로 확대돼 하루 최대 150만 명 이상 접종이 가능한 접종 역량을 지닐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어 “5월부터는 접종연령을 낮춰 일반 국민 대상 접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총리대행은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75세 이상 접종효과 분석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 화이자 백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4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93.2%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이상반응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발생 시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확실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올여름 일반 국민의 접종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대비해 접종을 마친 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 확진자 접촉 및 출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조치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신개발국인 미국, 영국, 백신이 조기 확보된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모든 국가가 백신수급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소개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백신수급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국내 백신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정부가 제약사와 계약한 백신 도입 예정 물량이 지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했다.

이날 대국민 담화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뤄졌다. **창**

문재인 대통령

“개정된 4·3특별법, ‘역사의 집’ 설계도 성실 이행”

4·3 희생자 추념식… “진상규명·명예회복 등 국가책임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4월 3일 “이번에 개정된 제주 4·3 특별법은 4·3이라는 역사의 집을 짓는 설계도로, 정부는 이 설계도를 섬세하게 다듬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평화공원 내 제주 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오늘 4·3 특별법 개정을 보고드릴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다. 특별법 개정으로 이제 4·3은 자기 모습을 찾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 4·3사건의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당장 4·3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됐던 2천530명이 일괄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문 대통령은 “2천162분의 특별재심이 아직 남아있다”며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상·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까지 유해로 돌아오신 408분 중 275분은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해발굴 사업과 함께 유전자 감식을 지원해 반드시 고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4·3트라우마센터’에 대해 “정부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국립 트라우마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센터로 승격하고 많은 분들의 아픔이 치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도민과 각계 단체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여야 합의로 개정이 이뤄진 것은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3 희생자 추념식에 사상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참석한 데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국가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도에 73번째 봄이 찾아왔지만 4·3이 도달해야 할 길은 아직도 멀리 있다”며 “밝혀진 진실은 통합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고, 되찾은 명예는 더 큰 화합과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聯 회장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촉구 세계한인회총연합회 구성 추진... “고국 도움 주는 단체 만들것”

‘재외국민 참정권 실질적 보장 촉구 청원서’라는 427쪽의 두꺼운 책을 들고 모국을 방문한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 의장인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은 인터뷰에서 “260만여 명의 재외국민이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이 책에는 현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재외국민 투표 사례, 세계 10개 대륙 375명 전·현직 한인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겨 있다.

심 회장은 “나라별 투표 장소가 대사관, 영사관 등으로 한정돼 있고, 투표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투표율이 저조하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며 “따라서 각국 한인회장들은 우편투표와 전자 투표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국무총리, 외교부, 국회, 중앙선관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방문해 책을 전달하면서 한인회장들의 뜻을 간곡히 어필할 계획이다.

심 회장은 10월 5일 창립을 목표로 사단법인 세계한인회총연합회(세계총연) 구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현직 한인회장들을 하나로 묶어 명실공히 재외동포들을 위한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고국에 도움이 되는 단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500여 개 한인회가 국내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돕는 것은 물론 한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차세대 교육에도 나설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단체가 출범하면 ‘한인회, 1기업·1청년 해외진출 지원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 2018년에 3년 임기의 아시아한인회연합회 수장에 오른 뒤 한인 1만 명이 거주하는 10개 도시를 찾아다니며 고충을 듣고 정부에 전달하는 등 의욕적으로 뛰고 있다.

올림픽 꿈 향해 하이킥... 멕시코 한인 ‘태권 부녀’ 이강영 멕시코 태권도 대표팀 감독과 청소년 대표 딸 서현

멕시코에서 활약하는 이강영(46) 태권도 품새 대표팀 감독과 큰딸 서현 세실리아 이김(17·한국이름 이서현)은 대를 이어 태권도를 사랑하는 ‘태권 부녀’다. 이 감독이 처음 멕시코에 온 것은 1998년이다. 태권도 겨루기 선수로 경기도 대표까지 지냈던 그는 제대 후 다른 나라에서 태권도로 성공려고 멕시코행을 택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하듯 멕시코에도 태권도는 올림픽 효자 종목이다. 역대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등 총 7개의 메달을 안겼는데, 이는 육상, 복싱 다음으로 좋은 성적이다.

태권도 중에서도 품새에 있어서는 이 감독이 멕시코 내 선구자나 다름없다. 한국에서 겨루기와 품새를 함께 했던 이 감독은 멕시코에서 품새 제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해 멕시코를 미주 최고의 품새 강국으로 만들었다.

2018년 대만에서 열린 세계품새선수권대회에서 이 감독이 이끄는 멕시코 대표팀은



우리나라와 개최국 대만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했다. 당시 멕시코가 딴 3개의 금메달 중 1개는 이 감독의 딸 서현이가 가져온 것이었다.

서현이는 기억에도 없던 아주 어린 시절부터 태권도를 했다고 했다. 처음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따라 했는데 클수록 태권도에 빠지게 됐다. 때로 엄격하고 때로 자상한 아버지 밑에서 태권도를 익힌 서현이는 공중 3단 돌려차기가 일품인 품새 청소년 대표가 됐고, 세계 정상에까지 섰다. 친구들과는 다른 외모 탓에 어릴 때 다소 소심한 성격이었다는 서현이도 태권도를 하면서 더 자신감을 얻고 또래보다 성숙해졌다고 말한다.

서현이뿐만 아니라 둘째 나연(14)이와 막내 서운(11)이도 태권도복을 입는다. 나연이는 유소년(카뎃) 대표다. 이들은 곧 있을 멕시코 국가대표 선발전과 내년 경기도 고양에서 열릴 세계품새선수권대회, 다음 팬암 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종일 땀을 흘리고 있다.




‘美 정부 최고 엔지니어’에 주한미군 한인 우연희 소령 한국에서 57억 달러 공사 지휘, ‘설계·관리·연구’ 탁월

주한미군 건설책임자로 있는 한인 우연희(미국명 모니카 피켄파우) 공군 소령이 미국 연방전문엔지니어협회(NSPE)로부터 ‘2021 올해의 엔지니어’에 선정됐다. 미주한국일보와 NSPE 홈페이지(www.nspe.org)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평택의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우 소령은 ‘올해의 엔지니어 상’ 수상과 함께 ‘2021 연방정부 최고의 엔지니어’로도 뽑혔다.

이 상은 미국 연방 정부가 채용한 2만3천여 명의 엔지니어 가운데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에게 주어진다. 전문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엔지니어링 성과, 교육, 기술 사회 활동, 인도주의 활동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우 소령은 수상자 10명 중 최우수 엔지니어로 뽑혔다.

그는 주한미군 건설 책임자로 한국에서 57억 달러(6조 4천615억 원) 자금 지원을 받는 공사 프로젝트를 지휘했다. 이 건설 프로그램은 한미간 공유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사령관의 방위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는 주한미군 의무 수행에 필수적인 주요 건설 요구사항을 검증하고 자금 조달에 큰 역할을 했다.

트리샤 해틀리 NSPE 회장은 “공학적 설계, 관리, 연구 등 전반에 걸친 우 소령의 업적은 놀랍다”고 말했다. 해틀리 회장은 우소령이 “애리조나 물 판매 분석을 위한 시장 비용분석법을 발전시켜 전문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바 있으며, 그의 식수분배 시스템 분석법은 수질에 맞게 설계된 유통망을 분석해 향후 수질 분배 및 활용을 예측하는 모델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우석명·영신 씨의 딸인 그는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서 태어난 한인 2세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캠퍼스에서 공학 석사, 애리조나대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6년 소령으로 진급했고, 한국 군무를 마치면 미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강단에 설 예정이다. 



메리다에 사는 김씨 · 이씨 · 박씨... 뿌리 기억하는 후손들

116년 전 멕시코 이주한 한인의 후손들, 한인 정체성 간직



1



2



3

- 1. 멕시코 유카탄주 메리다에 있는 한인이민박물관 외부.
- 2. 멕시코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김동순 선생의 후손들이 지난 3월 16일 메리다 한인이민박물관에서 열린 건국포장 전수식에서 애국가에 맞춰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있다.
- 3. 독립운동가 이종오 선생의 증손자인 멕시코 한인 후손 올리세스 박이 메리다 한인이민박물관에 걸린 조상의 가족사진 옆에 서 있다.

“이 분이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여기 이 꼬마가 어릴 때의 우리 어머니입니다.” 멕시코 동부 유카탄주 메리다에 있는 한인이민박물관 벽에 가득 걸려 있는 옛 흑백 사진들 앞에 서자 주위에 있던 이들이 저마다 사진 하나씩을 가리키며 ‘가족 자랑’을 시작했다.

스페인어를 쓰고 있었지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만큼은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하는 이들은 먼 멕시코에서 한국의 뿌리를 기억하며 사는 한인 후손들이다.

‘에네켄’ 한인들 고된 노동속에서 독립운동 지원

이곳 박물관에서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이 마련한 독립유공자 김동순 선생 후손 건국포장 전수식에 함께 자리한 한인 후손들에게서 한국의 피를 알아채기는 쉽지 않았다.

일부 2세를 제외하고는 겉보기엔 영락없이 멕시코인이고, 대부분 한국말도 하지 못했다. 한복을 곁에 입었거나, ‘안녕하세요’라고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는 이들에게 “한인 후손이냐?”고 물으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들의 조상이 처음 멕시코에 발을 디딘 건 116년 전인 1905년이다. 멕시코 메리다 일대 에네켄(선박용 밧줄을 만드는 선인장의 일종) 농장의 노동자 모집 광고를 보고 배에 오른 1천33명이 멕시코 한인 1세대다.

“북미 묵서(墨西哥·멕시코)는 미합중국과 이웃한 문명 부강국”이고 “수토(水土)가 아주 좋고 기후도 따뜻”한 데다 “한국인도 그곳에 가면 반드시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광고를 보고 배를 탔다. 새로운 기대로 새 삶을 꿈꾸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뜨겁고 건조한 농장에서의 노동은 몹시 고됐고 임금은 턱없이 적었다. 4년의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땐 약속한 ‘큰 이득’은 고사하고 한국행 여비조차 빼뺐다. 더구나 조국은 사실상 국권을 빼앗긴 상태였다. 결국 1세대 한인 모두 멕시코에 남았고 일부는 이후 쿠바로 건너갔다.

이른바 ‘에네켄’으로 불리는 멕시코 한인들은 한동안 기억 속에서 멀어졌다. 물리적으로 먼 데다 노동 이민이 한 차례에 그치다 보니 한국과 멕시코 한인과의 연결고리도 약해졌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차례로 겪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에도 바빴던 고국은 멀리 멕시코의 동포를 챙길 여유가 없었다.

그동안에도 멕시코 1세대 한인들은 한국의 뿌리를 기억하려 애썼다. 한인회를



4



5

4. 멕시코 유카탄주 메리다의 '대한민국로'에 설치된 유명호 작가의 조각 '그리팅맨' 앞에서 한인 후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5. 멕시코 유카탄주 메리다에 있는 한인이민박물관에서 할아버지 가족사진 옆에서 있는 돌로레스 가르시아(한인 3세) 관장.

조직하고 학교를 세우고, 빠듯한 임금을 쪼개 독립자금으로 송금했다.

독립된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던 한인들은 멕시코 땅에서 눈을 감았고, 세대가 지날수록 한국의 피는 얼어졌다. 1세대 한인의 성비 불균형 탓에 현지 여성과 결혼한 이들이 많았다. 대부분 노동자 계급이던 2세대 후손들에겐 부모의 모국어를 배우는 일보다 현지에 섞여 먹고사는 일이 급선무였다.

후손들에게 남은 뚜렷한 한국의 흔적은 현지 이름 뒤에 붙은 김·이·박 같은 성 정도였다. 그나마 한국 성마저 잃은 이들도 많다.

한인 3세인 에밀리오 코로나의 원래 성은 '고'였다. 멕시코로 건너온 조부 고희민 씨가 '높을 고(高)'를 설명하기 위해 머리위로 손을 쳐든 것을 현지 관리가 '왕관'을 뜻하는 '코로나'로 오해한 듯하다는 것이 그의 짐작이다.

한국어·한국문화에 관심 갖는 젊은 후손들 늘어

이대로라면 멕시코에서 한국의 뿌리는 점차 흐려져 사라질 일만 남았겠지만, 다행히도 그렇지 않았다. 세상이 좋아지고 한국과 멕시코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더 많이 서로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영화 '애니깽', 2000년대 김영하 소설 '검은 꽃'이 멕시코 한인들을 소환했다. 우리 정부도 뒤늦게나마 멕시코와 쿠바의 독립유공자를 찾아 기리고, 그들의 후손을 초청해 한국을 알렸다.

가장 많은 한인 후손들이 사는 메리다엔 '한·멕 우정병원'이 들어섰다. '대한민국로'가 생겼다. 그리고 '한국의 날'이 제정됐다.

젊은 한인 후손들의 관심도 달라졌다. 얼굴도 본 적 없는 선조의 모국과 그 나라의 언어, 문화에 관심을 갖는 이들도 늘었다. 멕시코에도 널리 퍼진 한류 덕분에 자신의 이국적인 성을 자랑스러워하는 이들도 생겼다.

메리다에 사는 한인 4세 예스비 리(40)는 아이의 이름을 '하늘'로 지었다. 독립유공자 김동순 선생의 증손녀 캘리 알론소 김(21)은 부모, 조부모도 몰랐던 한국어를 공부한다. 역시 4세인 마리아 에우헤니아 올센 아길라르는 '무궁화예술단'을 만들어 한국의 춤을 춘다. 이들은 모두 한인 후손임이 자랑스럽고, 한국과 멕시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메리다를 포함해 멕시코 전체엔 3만 명가량의 한인 후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멕시코 사회 각 분야에서 자리잡은 후손들은 모태 친한파나 마찬가지로.

한인 후손임을 모르고 사는 이들도 있고, 멕시코 한인 이민사엔 여전히 빈 곳도 많다. 공백을 메우는 건 한국과 멕시코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후손들이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고, 한국이 이 후손들을 잊지 않는 한, 그 옛날 먼 조국을 그리워하고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던 에네켄 한인들도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살아있는 이들이 기억하는 한 망자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멕시코 배경의 디즈니 영화 '코코' 속 메시지처럼 말이다. **[참]**

‘美 입양한인 대부’ 신호범 전 워싱턴주 상원의원

전쟁고아에서 주류 진출, 한인 정치인 양성에도 힘써

‘미’ 국 입양 한인 대부’로 불리던 신호범(미국명 폴신) 전 워싱턴주 상원의원이 현지시간으로 4월 12일 스노호미시 카운티 내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86세.

고인은 퇴행성 뇌 질환인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정계를 은퇴했다. 가족들은 세상을 떠나기 전 고인의 이름으로 지어진 재활기관 등을 운영하는 ‘신호범 센터’에 일부 재산을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935년 경기 파주시 금촌에서 태어난 그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4세 때 가족해 서울역 등에서 노숙 생활을 했다. 6·25 한국전쟁 때 미군 부대 ‘하우스 보이’ 생활을 하다가 16살 때 미군 군의관 레일 폴 박사에게 입양돼 태평양을 건넜다.

독학으로 중·고교를 마친뒤 유타주 브리검영대와 펜실베이니아대 국제관계학 석사, 워싱턴대(UW) 동아시아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메릴랜드대와 하와이대, UW, 웨스틴 워싱턴대 등에서 30여 년간 강의했다.

신 전 의원은 생전 “한글도 못 깨우쳤던 한을 풀어 한글과 영어를 공부해 선생님이 되는 것이 원래 꿈이었다”며 “처음에는 정치인이 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군부대에 근무하면서 인종차별을 느꼈다. 언젠가는 정치인이 돼 차별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으로 정치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1992년 당시 백인 인구가 절대다수였던 제21선거구에서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6년 뒤 주 상원으로 자리를 옮겨 당선된 후 내리 5선에 성공했다. 워싱턴주 상원 부



신호범 전 워싱턴주 상원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미국 워싱턴주가 2007년 한국의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첫발을 디딘 1월 13일을, 50개주 중에서 처음으로 ‘한인의 날’로 제정 선포했다.

의장을 지냈다.

그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아시아를 경멸하는 뉘앙스의 용어 ‘오리엔탈’(oriental) 대신 ‘아시아’(Asian)으로 쓰도록 법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 노력으로 ‘미국 최고 해외 이민자상’(2003년)을 받았다. 그가 발의한 이 법안으로 전국에서 ‘아시아’가 공식용어로 쓰이게 됐으며, ‘스페인시 아메리칸’이란 표현도 ‘히스패닉’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

또 워싱턴 주 정부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미주 한인 이민 시작일인 1월 13일을 기념해 ‘한인의 날’로 만드는 데 공헌했다.

출연금과 한인사회 후원금 등으로 ‘한미 정치교육장학재단’을 설립해 이사장을 맡은 뒤 ‘미주 한인 정치인 콘퍼런스·차세대 리더십 포럼’을 개최해 차세대 정치인 양성에도 힘썼다. 워싱턴주 엘렌스버그에 있는 센트럴 워싱턴대 이사, 세계 입양인협회 고문, 러시아 극동기술대 명

예교수, 중국 연변 과학기술대 명예교수 등을 맡기도 했으며 한국 경동대 명예 총장 직함을 갖기도 했다.

그는 미국 내 한인 입양단체들이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강연을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콘퍼런스를 열고,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 누구보다 입양인들의 아픔을 보듬어줘 ‘입양한인의 대부’로 불렸다.

그는 미주동포후원재단이 주는 ‘제1회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미국 역사와 이민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앨리스 아일랜드상’ 등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공부 도둑놈 희망의 선생님’, ‘기적을 이룬 꿈’, ‘사랑하며 섬기며’ 등이 있다. **장**

호주동포 강다예 변호사 “北 인권 향상 기여하겠다”

북한법 알려 세계변호사협회 ‘2020 젊은 변호사상’ 수상

호주 동포 2세 강다예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세계변호사협회(IBA)로부터 북한 인권 문제를 표면화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2020 올해의 젊은 변호사상’을 받았다.

‘법조계 유엔’으로 불리고, 영국 런던에 행정본부를 둔 IBA는 170여 개국의 우수 로펌과 변호사 협회, 법률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8만 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2019년 서울에서 총회가 열리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1년 동안 근무하고 다음 근무지로 이동하기 전 한 달간 한국으로 휴가를 갔을 때 북한인권시민연합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소개했다. 현재 멜버른에서 법정 변호사(Barrister)로 활동하는 그는 북한법 영어번역 사이트(www.lawandnorthkorea.com)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통일 법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북한 법령을 찾아 영어로 소개한다. 북한법을 알고 싶어하는 세계의 많은 법학자와 시민단체(NGO)들이 벌써 관심을 보인다고 했다.

그가 북한법을 영어로 번역하는 이유는 ‘소통’ 때문이다. “독일 통일과 소련 붕괴 후 독립한 국가들로부터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데, 주로 영어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법 체계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번역하는 이 작업을 지금 해 놓으면 나중에 요긴하게 쓰이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강 변호사는 북한인권시민연합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평생 외국에서 자란 동포로서 모국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참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정체성에 새로운 차원이 생긴 것”이라고 의미를 뒀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가 ‘책임규명’의 방향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피해자들과 협력해 가해자를 밝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이 최근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지만, 한국



은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 시민단체들이 경제 제재 등으로 대신 나서면 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성폭력과 가정 폭력에서의 회복적 정의’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성폭력과 가정 폭력은 현재, 여전히, 어디서든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 문제에 관심을 둔 이유는 동양인 이민자로서 현실에서 알게 모르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는 공적인 장소에서 일어나는 무심한 성차별적 말이나 아동에게 언어적 폭력을 행하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없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 성폭력과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끝없이 고민하며 법전을 파고든다. “법정 변호사로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북한 인권 유린 책임 규명과 함께 인권운동가가 아닌 변호사로서 돕고 싶다”고 밝혔다. **[장]**

캐나다 애국지사기념사업회, 독립운동가 조명 책 발간

송고한 민족 사랑 · 조국애 소개로 후손들에 뿌리 의식 고취

캐나다 애국지사기념사업회(회장 김대역)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한 책 '애국지사들의 이야기 5'를 최근 국내에서 출간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머니로 불리는 곽낙원을 비롯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파일럿 권기옥,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아내 이해련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또 불굴의 지사(志士) 김창숙, 몽양 여운형, 전 재산을 바쳐 독립군을 양성한 이회영, 근대 의학의 초석 '세브란스병원' 설립자 올리버 에 이비슨 등도 소개한다.

책에는 이윤옥 시인의 '우리는 여성 독립운동을 얼마나 알고 있나', 캐나다 한인사회 인사들이 전하는 '존경하는 애국지사 · 독립운동가', 캐나다에서 출생한 12명의 이민



캐나다 애국지사기념사업회 발간, '애국지사들의 이야기5'

2세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다.

2010년 창립한 애국지사기념사업회는 2014년부터 '애국지사들의 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해 2018년부터 매년 독립투사를 조명하는 책을 펴내고 있다. 17명의 독립운동가 초상화를 제작해 동포사회에 헌정하는가 하면 매년 캐나다 동포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보훈 문예 공모전을 열고 있다.

김대역 회장은 "2011년에 김구, 안중근, 안창호, 윤봉길 등을 소개한 책을 시작으로 독립운동을 지속해 조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애국지사들의 송고한 민족 사랑 정신과 조국을 알려 한인 후손들에게 뿌리 의식을 고취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제30대 아르헨티나한인회 출범, "차세대 소통 앞장설 것"

1세대 어르신 돌봄 봉사 확대, 한인사회 발전 간담회도 개최

제30대 아르헨티나한인회 출범식이 지난 3월3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대원정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29일 열린 선거에서 867명의 투표자 가운데 97%의 지지를 받으며 제30대 아르헨티나한인회장으로 연임을 하게 된 백창기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한인사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 후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날이 있기까지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1세대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봉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한인회 정기총회,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 등이 함께 열렸다. 정기총회에서 김동빈 대민본부장은 2021년도 사업계획을, 정남배 재정본부장은 2021년도 예산 보



백창기 한인회장(왼쪽 세 번째)이 코로나19 사태 기간 한인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친 임원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고를 했다. 장명수 주아르헨티나한국대사,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제7·제10 구청장, 다문화청장 등도 참석했다.

이어진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페데리코 구청장은 한인 거주지역 식당가 보수 및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제훈 한인회 차세대본부 홍보부회장은 '젊은 한인세대의 참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한인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년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한인회는 이날 이명자 부인회 회장, 남혜영 한인회 부회장, 윤진호 한인회 부회장, 양상모 한인회 부회장, 백현준 범범위원장, 김알레한드로 변호사 등 코로나 사태19 방역을 위해 애쓴 6명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사할린 한인, 日 정부에 “후손, 한국 영주귀국 허용” 촉구

3만여 한인 “1세 잔류자 도움 필요, 인도적 지원 지속돼야”

3만여 사할린 한인들이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후손이 한국으로의 영주귀국을 희망하면 이를 허용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1992년 시작된 사할린 한인의 고국 영주 귀국 사업은 일본 정부가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적십자사를 내세워 예산 등을 지원하고, 한국 정부가 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할린한인협회(회장 박순옥)와 사할린주 한인이산가족협회, 극동-시베리아 한인이산가족협회, 연해주 한인이산가족협회, 지역 간 사회단체 사할린한인협회, 지역 사회단체 이산가족협회, 카자흐스탄 사할린향우회 등은 최근 일본 정부에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단체들은 ‘사할린 한인 지원 한·일 적십자사 공동 사업체’



사할린주 한인들 회의 장면. 위 사진 왼쪽이 박순옥 사할린한인협회장

에 한인 단체 대표자를 참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서 영주귀국이 마감되더라도 현지에 남은 강제 징용 1세들을 위해 지원을 계속하고, 부모가 사망한 후손의 모국 방문을 추진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또 징용당한 사할린 한인들의 미지급 임금, 우편 예금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돈을 한인 특별 기금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연로한 1세가 영주귀국이나 일시 모국을 방문할 때 동반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 정부에도 러시아 정부와 이중국적 허용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1세 잔류자들을 위해 양로원 건립과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결의문을 보냈다.

“힘들죠?”… 인도네시아판 ‘구룡마을’에 한인 온정

도심 속 판자촌에 식료품·마스크·티셔츠 전달

서울 강남의 판자촌 구룡마을 뒤에 타워팰리스가 우뚝 솟아있는 것처럼 자카르타 남부 초고층 아파트·백화점 복합단지 꼬망빌리지 앞에는 판자촌이 있다. 씨프테 우타라(Cipete utara)라는 이름의 이 판자촌은 이른바 ‘인도네시아판 구룡마을’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14가구가 살고 있다.

판자촌 옆에는 큰 개울이 흐르는데, 폭우가 내리면 판자촌 전체가 어김없이 물에 잠긴다. 지난해 우기에는 두 명의 주민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다. 전기가 안 들어오고, 상하수도 시설도 없지만, 이곳 주민들은 돈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엄두를 못 낸다.

작년 5월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인들이 이 마을에 처음으로 라면과 마스크, 쌀과 과자를 지원했다. 이를 계기로 이번 4월 3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부 초고층 아파트·백화점 복합단지 꼬망빌리지 앞에 있는 판자촌 ‘씨프테 우타라’에서 주민들이 구호품 주변에 모여 있다.

일에도 이들을 찾았다. 1년 만에 다시 찾아온 것이다.

마을 대표 나냥 씨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온정을 베풀어줘 정말 감사드립니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구호품을 전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광중 동남아남부 협의회 회장과 안선근 국립이슬람대학교 교수는 “코로나 시기에 살기가 더 힘들겠지만, 곳곳이 버티길 바란다”며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구호품은 인도네시아의 민주평통과 한인회, 자유총연맹이 마련했다.

한인 단체들은 판자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도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8곳에 라면 550박스, 마스크 3만장, 티셔츠 900장을 선물했다.

‘한류의 힘’ 홍콩 첫 한인 오케스트라 ‘가온’ 데뷔무대

BTS ‘다이너마이트’ · ‘태양의 후예’ OST 등에 청중 환호

홍콩에서 첫 한인 오케스트라 ‘가온’이 4월 29일 저녁 홍콩컨벤션센터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다. 홍콩한인상공회가 창단한 ‘가온’은 홍콩에 거주하는 11~15세 한인 학생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규모 쇼핑 박람회 ‘라이프스타일 쇼핑페스트’ (Lifestyle ShoppingFest)가 진행 중인 홍콩컨

벤션센터에 차려진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사랑의 불시착’ OST, ‘홀로 아리랑’과 ‘아름다운 나라’를 차례로 연주했다.

홍콩에서 한류가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연주곡들은 모두 현장을 찾은 홍콩인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연주가 시작되자 익숙한 선율을 따라 사람들이 무대 앞으로 속속 모여들어 박수를 보냈다.



홍콩 첫 한인 오케스트라 ‘가온’이 4월 29일 홍콩컨벤션센터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다.

‘가온’은 전날 낮에는 6명이 앙상블을 이뤄 공연을 펼쳤다. 홍콩 민영 방송 TVB 등 현지 매체들도 관심을 보이며 공연을 취재했다.

홍콩 국내외 4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라이프스타일 쇼핑페스트’는 홍콩에서 코로나19 이후 1년여 만에 열리는 큰 규모의 행사다.

홍콩한인상공회는 오랜만에 열리는 큰 행사를 앞두고 홍콩 사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자는 차원에서 문화행사를 기획하였다. 한인 오케스트라 창단은 이번 문화 행사의 의미를 돋보이게 하였다.

오케스트라의 단장을 맡은 김태화 홍콩 한국국제학교(KIS) 교사는 “홍콩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보며 한류의 힘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말했다.

美한국학교협의회, 차세대 정체성 교육 40년사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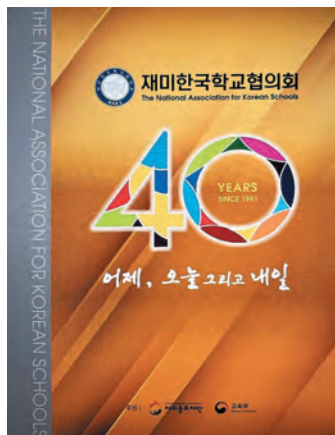
800여 한글학교서 8천여 교사 8만여 학생 교육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 회장 김선미)는 창립 40년의 업적과 발자취를 돌아보고 차세대 정체성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사서를 최근 펴냈다고 28일 밝혔다.

‘NAKS 40년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제목의 책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는 미주 한국학교의 설립과 성장, 비전 등 역사적 기록이 제시되어 있다.

창립 40년사에는 미국과 한국 각계각층에서 보낸 축사를 비롯해 한국어 교재와 교육과정의 변천, 교사 연수회, 학술지, 협력 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방대한 자료들이 수록돼 있다.

1981년 4월 18일 버지니아 로슬린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서 한인 학교 교육에 뜻있는 대표자 50여 명이 모여 결성한 ‘재미한



‘NAKS 40년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표지

인학교협의회’가 NAKS의 출범이다.

이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NAKS는 미국 전역 14개 지역협의회를 조직하고, 800여 개의 학교를 거느린 단체로 성장했다.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교사 8천여 명이 8만여 명의 학생에게 한민족 정체성 교육을 하고 있다.

김선미 회장은 “이 역사서가 오늘을 살아가는 차세대 한인들에게 자긍심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미래 세계시민으로서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지표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NAKS는 현지시간 7월 15~17일 온라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회와 정기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창**



세계한인무역협회, 5월 24~27일 대전서 수출상담회

세계한인무역협회는 대전시와 함께 5월 24~27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제22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전 세계 68개국, 143개 도시에서 회원 등 75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24일에는 시와 5개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설명회가 열리고, 25~26일에는 온라인 취업 컨설팅과 해외 채용설명회가 이어진다. 26~27일에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위한 월드옥타 회원 매칭 수출상담회·발표회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유튜브(www.youtube.com/worldokta)로 생중계한다.



전북체육회,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에 마스크 2만장 전달

전북도 체육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근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에 마스크 2만장을 전달했다고 4월 22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전 세계 한인 체육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윤만영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장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 중이어서 마스크 수요가 많은데 너무 감사하다"며 "한인 체육인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체육회는 도내 14개 시·군 체육회와 종목단체, 실업팀 등에도 마스크를 전달할 계획이다.



연아 마틴 加 상원의원, 가평 전투 알리는 SNS 캠페인

한인 최초의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인 연아 마틴(한국명 김연아·56)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평 전투 70년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가평 전투가 벌어진 날짜와 비슷한 4월 23일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1951년 4월 23~25일 치러진 가평 전투는 캐나다군 프린세스 패트리샤 경보병연대(PPCL)가 포함된 영국 연방군이 5배나 많은 중공군의 인해전술 공세를 막으며 서울 진출을 저지한 전투다. 연아 마틴 의원은 2010년 7월 27일을 '국립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로 지정해 참전용사들에게 긍지를 심어줬다.



아마존, LA 한인단체와 손잡고 '증오범죄 근절' 옥외광고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설립한 영화 제작·배급사 아마존 스튜디오가 LA 한인회와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과 함께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옥외광고에 나섰다. 아마존 스튜디오는 한인타운 인근 대로변을 포함해 LA 시내 3곳에 설치된 대형 광고판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한인 단체들이 광고 내용을 제작했다. 옥외 광고판은 최근 증오범죄 가해자의 표적이 되곤 했던 백발의 아시아계 할머니가 '증오는 바이러스'라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림을 담았다. 또 '아시안 증오를 중단하라'는 문구도 넣었다.



카자흐 한인회, 코로나19 확진 한인에 식료품 지원

카자흐스탄 한인회(회장 강병구)는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중인 한인들에게 식료품을 지원한다. 카자흐스탄은 매일 2천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하며, 한인 밀집 거주지인 알마티와 누르술탄에서 급증하고 있다. 1인 거주 한인과 가족 단위로 코로나19에 걸린 한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키트는 라면, 쌀, 김치, 조리 음식 등과 마스크, 체온계, 해열제 등으로 구성됐다. 한인회는 이 키트와 함께 약품과 식품 구매를 대신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태상 한인회 부회장, 강동희 '김치닷컴카자흐스탄' 사장 등이 후원했다.



캐나다한인회총聯, 연방정부에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 촉구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캐나다총연·회장 주점식)는 최근 캐나다에서 증가하는 아시안 인종차별과 증오범죄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방지해 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지 26개 지역 한인회를 대표하는 캐나다총연은 성명서 발표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도 보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캐나다 전역 25만여 명의 한인이 최근 증가하는 아시안 대상 혐오 범죄로 위기에 내몰렸다"며 "인종차별 행위와 증오범죄로부터 캐나다 내 아시아 소수민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한글에 태권도 교육까지... “차렷, 경례”

아시아발전재단, 태권도 사범 급여 지원... 주 3회 무료 수업

인도네시아 동남 술라웨시주 부톤섬 바우바우시 경찰서 강당과 앞마당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 오후가 되면 우렁찬 한국어 구호가 울려 퍼진다. 12년째 찌아찌아어 한글 수업을 이어온 정덕영(60)씨는 “4월 1일부터 주 3회 태권도 무료 수업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부톤섬 인구 50만여 명 가운데 7만 명을 차지하는 찌아찌아족은 표기법이 없어 고유어를 잃을 처지에 놓이자 2009년 한글로 찌아찌아어를 표기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후 초등학교에서 주1회 찌아찌아어 수업을 한글 교재로 가르친다.

2010년 3월 처음 부톤섬에 파견된 정 선생은 훈민정음학회, 세종학당 파견을 거쳐 현재까지 부톤섬에 남아 현지인 보조 교사들과 함께 찌아찌아어 한글 수업을 이어오고 있다.

정 씨는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교육을 접목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한국의 아시아발전재단(ADF)이 실현할 수 있게 지원해줬다”며 “태권도 사범 3명의 월급과 태권도복을 지원받아 이달부터 태권도 수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임에도 바우바우시 경찰서가 강당과 앞마당을 태권도 교육 장소로 내줬고, 현지 청소년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60여 명의 수련생은 초등학교생부터 20대 중반까지 다양하며, 여성이 60~70%다.



인도네시아 부톤섬에서 소수부족어 찌아찌아어를 한글교재로 가르치고 있는 정덕영 씨와 학생들(좌). 찌아찌아족은 한인사회와 한국 단체 등의 도움으로 4월부터 한글 교육에 이어 태권도 교육도 받는다.

정 씨는 “태권도 수업에서 인사하고, 구령을 붙이는 것 모두 한국어로 한다”며 “태권도 수업 시간에 게임도 하고, 흥미를 느낄만한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들이 아주 재밌어한다”고 말했다.

정 씨와 현지인 보조 교사 3명으로부터 주 1회 찌아찌아어 한글 수업을 받는 초등학교는 4개 학교이다.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교는 고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이다.

바우바우시의 모든 학교는 온라인 수업 중이다. 다만 ‘코로나 그린존’인 남부톤군의 자야박띠초등학교와 라웰라초등학교, 삼빨라와 중학교에서는 대면 수업을 하고 있다.

그는 “한글, 한국어 발음기초를 가르치려면 입 모양을 보여줘야 하기에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내가 가르

치는 한글·한국어 교사 양성과정에 10여 명이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서 “새로운 고등학교 한 곳이 한국어 수업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서 보조교사를 더 늘릴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체재비와 보조 교사들 임금, 교재비 등 대부분의 비용은 2014년 3월 정 선생과 지인들이 설립한 ‘한국찌아찌아문화교류협회’에서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 동포들도 정씨를 돕고 있다. 작년 5월에는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코참) 소속 기업인 김호권·이강현·박길용 등 세 명이 보조 교사들이 쓸 노트북 3대와 찌아찌아어 한글 교재 230권 제작비를 지원했다.

작년 11월에는 자카르타 외곽 땅그랑에서 봉제회사를 운영하는 서광호 금광섬유 대표가 ‘찌아찌아 한글학교’라고 적힌 티셔츠 1천500장을 선물했다. **창**

中역지에 분노한 한인 학생들... 美도시 설득 '한복의 날' 제정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시, 해외 최초로 '한복의 날' 선포



한복의 날 제정 이끌어낸 한인 청소년 단체 '재미차세대협의회'(좌), 미국 뉴저지주(州) 테너플라이시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Korean Hanbok Day)로 공식 선포했다. 사진은 한복의 날 선포식에 참석한 한인 학생들.

한복이 중국 전통의상이라는 억지 주장에 분노한 미국의 한인 고교생들이 해외 최초로 '한복의 날' 제정을 이끌어 냈다.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단체 재미차세대협의회(AAYC)는 4월 4일 뉴저지주(州) 테너플라이시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Korean Hanbok Day)로 선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복이 한국의 전통 복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코리안'이라는 단어를 정식 명칭에 삽입했다. '한복'도 한글 발음 그대로 'Hanbok'으로 표기했다.

10월 21일을 선택한 것도 한국에서 시행되는 한복의 날과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다. 한국을 제외한 외국에서 한복의 날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AAYC의 설명이다.

한인 고교생들이 한복의 날 제정을 위해 나선 것은 중국이 김치와 한복이 중국 문화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서

김치와 한복 논란을 접한 브라이언 전(18) AAYC 대표가 온라인으로 회원들과 대책을 논의했고, 한복이 한국의 문화라는 근거를 남기자고 뜻을 모았다.

미국 정치권과 지자체들을 향해서도 설득을 했다. '한국 한복의 날'을 제정한다면 후세에는 중국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뜻을 모은 학생들은 미국 정치권과 지역 정치인들에 한복의 날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 서한을 보냈고, 마크 진너 테너플라이 시장이 처음으로 학생들의 요청을 수락했다.

진너 시장은 한복의 날 선포문에서 "한복의 기원은 기원전 2천333년 단군이 건국한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며 한복이 한국의 전통이라고 뜻을 밝혔다.

진너 시장은 테너플라이시가 한복의 날을 선포하는 이유에 대해선 "한인사회의 힘과 대한민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했다.

테너플라이시는 4월 6일 한복의 날 선포식을 열었다. 애국가와 함께 시작된 이날 행사에선 한인 학생들이 한복차림으로 장구춤 등 전통 무용을 선보이기도 했다.

AAYC는 테너플라이를 시작으로 미국 내 다른 도시들을 대상으로도 한복의 날 제정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AAYC는 지난 2017년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종 차별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결성된 청소년 단체다.

최초의 일본군 위안부기림비 건립도 시민참여센터 뉴저지주 고등학생 인턴들이 버겐카운티 한인상가를 돌며 캠페인을 벌인 것이 기초가 되었다. 이에 현재 뉴저지 지역에만 위안부 기림비가 4개소, 전국적으로 기림비가 건립되고 있는 중이다.

AAYC는 미국 내 한인의 정치력 신장이 주요 목표이다. 최근 구글이 김치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자 단체로 항의 메일을 보내 1시간여 만에 원산지를 바로 잡기도 했다. [▶](#)

재외동포재단 임직원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재외동포재단 임직원은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며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재외동포재단 임직원은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참배를 했다고 4월 5일 밝혔다. 이들은 위령 제단에 분향과 헌화를 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어 4·3 평화기념관을 둘러보며 4.3의 가치와 정신을 되새겼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4·3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재단은 ‘평화의 섬’ 제주의 일원으로서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 상생의 이정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아시아 한인사회 화상 간담회

재외동포재단은 아시아 지역 한인회장에게서 동포사회 애로사항을 듣는 화상 간담회인 ‘찾아가는 동포재단’을 4월 7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는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필리핀,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17개 지역 현직 한인회장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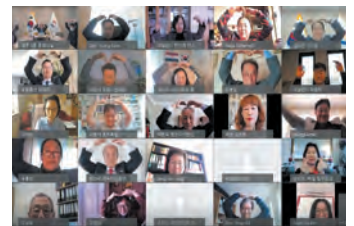


재외동포재단은 아시아 지역 동포사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비대면 화상 간담회를 4월 7일 개최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힘든 취약계층 동포 지원, 백신 접종 확대, 한국 정기 항공편 취항 재개 등을 요청했고,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우리 동포의 생활고가 심각한 만큼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코로나19 유럽 한인사회 화상 간담회

재외동포재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럽 한인사회를 돕기 위해 4월 21일 화상 간담회를 열었다.



재외동포재단은 4월 21일 유럽 동포사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각국 한인회장과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제현 재유럽한인회총연합회장 등 14개국 35개 한인회장들은 관광객 급감에 따른 아르바이트 감소로 힘든 한인 유학생 지원과 유럽 지역 재단 주재관 파견을 요청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에 놓인 동포가 늘어 한인회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소통강화와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中·캐나다 한인사회 고층 청취 화상 간담회

재외동포재단은 한인사회 현안 협의와 고층 청취를 위해 중국·캐나다 한인회장들과 화상간담회인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을 개최했다.

하정수 중국한국인최총연합회장 등 22명의 중국 전·현직 한인회장은 4월23일 간담회에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지원단 발족', '백신 접종자 고국 입국 시 자가격리 완화', '재외선 거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주점식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장 등 14명의 캐나다 현직 한인회장은 4월 26일 '코로나19 극복 한국어 심리 상담 지원', '아시아 혐오범죄 대응', '재외동포청 설립' 등을 건의했다.



재외동포재단은 4월 23일 중국 각 지역 한인회와 현안을 협의하고 고층을 듣는 '찾아가는 동포재단'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계한인회장대회' 10월 4~7일 온·오프라인 개최

재외동포재단은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대회를 서울 또는 제주에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4월 21일 밝혔다.

4월 20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운영위원회에는 대회 공동의장인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과 주점식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장 등 14개국 1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결과 보고와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기본계획 의결,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현안 등을 논의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최근 아시아혐오범죄 대응 및 코로나19로 인한 동포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재단의 '찾아가는 동포재단' 프로그램에 각 대륙별 총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창**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재일동포와 민족무용

한울아카데미 / 한영혜
동포사회에서 모국을 기억하는 방식은 노래와 춤과 같은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차지 한다.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래가락과 몸짓으로 전해내려오는 모국의 향취는 모국을 떠난 지 몇 십년이 되어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한다. 한류는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시장으로 본다. 이런 흐름 가운데 타국에서 우리의 무용을 전승해온 동포들의 마음은 어떨지 궁금하다. 이 도서는 해방 후 재일동포 사회에서 민족무용이 이념을 통해 이원화되어 내려온 역사를 펴냈다. 두 조국을 품고 살아온 재일동포의 정체성을 민족무용이라는 주제로 살펴볼 수 있다. 이념과 경계의 사이에서 전승되고 수용된 민족무용의 양상을 살펴보고 문화적 요소의 힘을 알아본다.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

아시아발전재단 / 김용필, 임영상
대한민국에 많은 귀한 동포와 이주민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다. 다문화 및 상생의 지역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고민으로 출간된 도서가 있다. 이 책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외의 중국 동포타운과 고려인 마을, 외국인 집거지 총 19개소, 수도권 밖 9개소의 마을을 소개하고 있다. 곁에두고 무시했던 국내 다문화 사회의 지도를 살펴보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과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자.



코리안 디아스포라

눈빛 / 김지연
'동포'들의 존재를 찾아다니며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온 사진작가가 있다. 이 작가는 그간 20년 동안 우크라이나, 러시아, 연변과 일본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한인들의 모습과 에세이를 담은 사진집을 펴냈다. 사진집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에피소드와 후일담을 더하여 사진으로 전하지 못한 동포들의 애환과 소감을 담았다. 동포들의 현재 모습을 찾아보고 위로와 공감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자.



외교부, 혐오범죄 대응 위해 재외동포단체에 1억7천만원 지원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아시아계 혐오 범죄 대응 차원에서 재외동포단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4월 19일 밝혔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이를 위해 모두 6개국의 33개 동포단체를 대상으로 약 1억7천만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 이 지원금은 다른 아시아계 단체 등과 연

계망 구축, 혐오범죄 예방 교육·관련 세미나 진행, 동포사회 내 혐오범죄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혐오범죄 대응을 위해 6개국 33개 동포단체에 1억7천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외동포단체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으로서 마련됐다.

외교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주재로 미국·캐나다 지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재외동포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법무부, 국내 동포 적응 돕는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

최근 3년 이내 국내 체류 동포의 고충이나 취업 상담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3인 이상의 상근 상담직원과 3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쉼터 시설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는 12일까지 운영계획서와 신청서 등을 작성해 법무부 체류관리과로 보내면 된다.

선정된 기관은 올해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동포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홍보하는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심사 결과는 6월 2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문의는 02-2110-4063.

한국국제협력단, 창립 30주년 개발협력 선도

정부의 개발협력 전문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4월 1일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한국은 1945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주요 대상국이었다. 1950~1960년대 국제사회 원조를 받던 한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비약적 경제성장 덕분에 1995년 세계은행의 유상차관 상환, 1996년 선진국 진입의 관문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2009년 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1980~1990년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위상이 높아져 자자 책임 분담에 국제사회의 기대도 높아져 1991년 1월 ‘한국국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국국제협력단 본부 전경.

제협력단법’이 공포되면서 같은 해 4월 1일 코이카가 설립됐다. 설립 당시 174억 원이던 ODA 규모가 올해 9천722억 원으로 56배 늘었고 캐나다·아르헨티나 등에 6개 지역에만 뒀던 해외 사무소는 44개 지역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120개 협력국에 7개 협력기구는 183개국에 90개 기구로 늘었고, 201명이던 인력도 563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초창기 ‘사람을 데려오고, 사람을 내보내는’ 형태의 사업에서 현재는 국가별 협력 프로젝트 사업, 연수, 인도적 지원, 인재 양성, 혁신적 개발협력, 시민사회 협력, 국제질병퇴치기금 등 사업 유형도 다양화했다. **창**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행학교, 대한민국 항공의 역사를 찾자.

역사를 찾는 일은 나를 알아가는 일이다. 역사를 수집하고 그 가치를 밝혀 시민들과 공유하는 곳이 다름 아닌 박물관이다. 지난해 김포공항 내에 국립항공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우리 항공의 역사를 수집하고 세계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최초의 국립박물관인 셈이다. 개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정) 비행학교 1세기를 기념하기 위해 개교 100년이 된 2020년 7월 5일에 맞춰졌다.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비행학교를 세웠다는 사실을 필자를 비롯한 초청자들 상당수도 잘 모르는 눈치여서 개관식 자리는 새롭기만 했다.

1920년, 국권을 상실한 우리 민족이 항공기를 이용해 나라를 찾겠다고 비행학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항공박물관을 통해 새삼 알려지게 된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항공의 연원으로 윌로우스 비행학교라 더 잘 알려진 임정 비행학교는 당시 '한인비행학교' '비행가양성소' 등으로 불렸다. 3·1운동 다음 해인 1920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북쪽 약230km 떨어진 캘리포니아주 북부 윌로우스(Willows) 시(市) 일원의 광활한 대평원에 문을 연 이 비행학교는 임정의 원대한 꿈이 최소 1년 반가량 이어졌던 곳이다.

수십 명의 한인 청년들이 이곳에서 비행사 훈련을 받았으며, 이 중 최소 2명이 독립군 비행 장교로 공식 임관했다. 우리 공군이 이 비행학교의 법통을 잇겠다는 명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윌로우스 비행학교를 추진한 주요 인물 중 한 명은 노백린(盧伯麟, 1875~1926) 임정 군무총장(현 국방장관)이었다.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장을 지낸 노백린은 1916년 하와이로 망명해 독립군 양성에 힘쓰던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쌀농사로 백만장자가 된 김종림(金宗林, 1884~1973)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아 비행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참으로 역사적이고 감동을 주는 스토리가 아닐 수 없다.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이 비행학교의 건물 일부가 방치된 채 지금도 윌로우스 현지에 남아있음이 확인됐다. 대한민국 항공의 시원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이역만리 허허벌판에서 100년을 꿋꿋이 버텨온 것이다. 다행스럽고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안 이상 더는 방치하거나 외롭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가 찾아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 국립항공박물관이 국토부,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단이 손잡고 비행학교를 찾아 복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져왔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비행학교의 실체를 상세히 조사하고 되찾아 대한민국 항공의 가장 중요한 역사로 되살려내기를 간절히 기대

해 본다. 특별히, 국외에 있는 역사의 흔적을 발굴해 정리하는 것은 재외동포에게는 커다란 자긍심을 줌은 물론 고국을 잘 모르는 자라나는 후세들에게는 그 뿌리를 확인케 할 좋은 기회가 됨은 물론이다. 재외동포를 대변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과도 잘 협업하여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노력하였으면 한다. **장**



세계한상대회 영비즈니스 리더 참가자 모집

재외동포재단은 현지 주류사회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재외동포 경제인을 초청하여 '2021 영비즈니스 리더&한상(韓商)포럼'을 개최합니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10월 19~21일 대전광역시에서 열리는 '제19차 세계한상대회'와 연계하여 시행되는 행사로 국내외 기업인을 초청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역대 참가자 100여 명과 리딩CEO 20여명이 참여하며 신규 선발은 50명입니다. 재외공관, 국내외 경제단체, 리딩 CEO 등이 추천하는 재외동포로 거주국에서 주목 받고 있는 기업인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외참가자는 현지 주류사회에서 활동 중인 CEO, 전문 경제인 등이 해당되며, 국내 참가자는 우수 경제인으로 한상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갖고이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홈페이지(www.hansang.net)에서 내려받아 6월 16일까지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7월 중에 선발 결과를 발표합니다.

CIS지역 한글학교 교사 한국어 집중연수 참가자 모집

재외동포재단은 CIS지역 한글학교 교사들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5주간 'CIS지역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한국어 집중연수'를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7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5주간 온라인 연수가 진행되며 30명 이상을 모집합니다. 한국어 숙달도 향상을 위한 수준별 학습과 초급부터 고급까지 분반 수업, 발음과 문법뿐만 아니라 말하기와 듣기 읽기 쓰기 수업이 진행됩니다.

교사들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한국 역사와 문화 특강이 열리며 연수기간 모의 수업도 진행합니다.

CIS지역 현직 한국어 교사로 공관장 추천자, 연수 후 상당기간 한국어 교사로 재직 예정인자, 온라인 강의 수강이 가능한 자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5월 21일까지며 공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선발 결과를 통보합니다.



4월의 재외동포재단 임원 동정

김성곤 이사장

- 4월 2일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방문
- 4월 5일 : 제주 4.3 추모행사 참석
- 4월 5일 : 대륙별총연합회장 화상 간담회
- 4월 8일 : 한·아프리카재단 방문
- 4월 12~13일 : 한상 리딩CEO포럼 및 세계한인회장대회 1차 운영위원회 참석
- 4월 23일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전시·디지털아카이브 실무추진단 발족식 참석
- 4월 29일 : 글로벌 한상드림 이사회 참석
- '찾아가는 재외동포재단(찾동)' 화상 간담회 : 아중동(4월 7일), 유럽(4월 21일), 중국(4월 23일), 캐나다(4월 26일)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좌)과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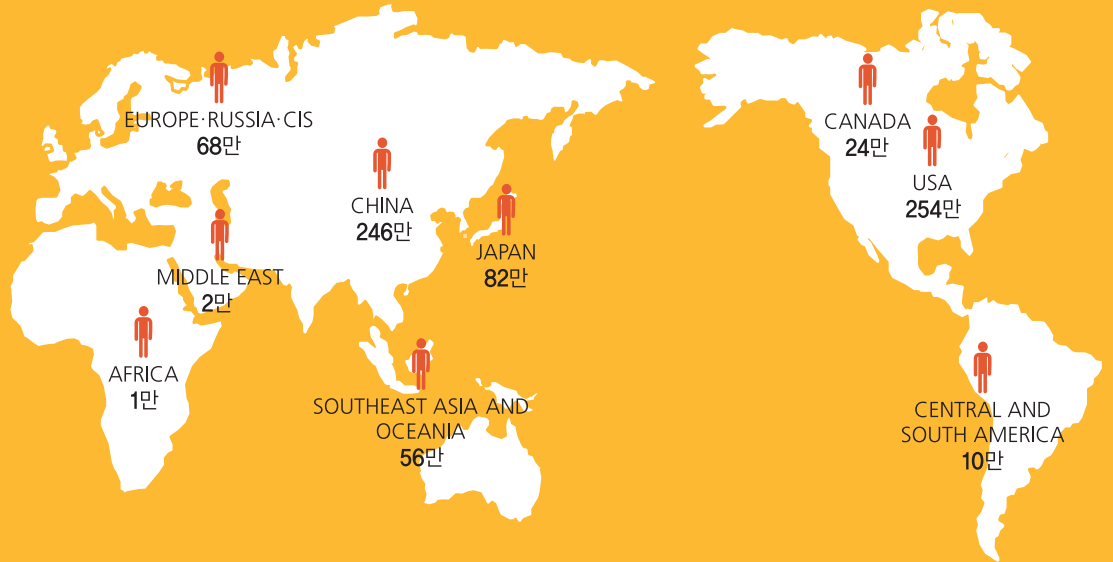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세계 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